

“나와의 싸움에서 이겼다는 게 흐뭇”

지역에 학원 없어 독학으로 공부 ... 1년에 2회씩 서울서 시험, '9전10기'

5년 도전해 속기사 시험 합격 최은하씨(의회사무과)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시대에는 자신의 위치에서 전문가가 되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한 거 같아요.”

고성군청 기능조무사로 입사해 20여년간 한 부서에서만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 5년의 도전 끝에 마침내 속기사 2급자격증을 따낸 것이 알려져 화제다.

고성군청 의회사무과 최은하씨(40세, 사진)는 의회사무과에서 기록물을 정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군의회 정례회나 임시회 때 의원들의 발언이나 공무원의 답변을 기록하는 업무가 가장 중요한 일이다.

죽왕면 구성리 태생인 최씨는 20살때인 지난 1991년 고성군청에 기능조무로 입사했다.

입사와 동시에 의회사무과에 배치된 최씨는 다른 직원들은 몇 년에 한번씩 순환근무를 하는데 반해 줄곧 의회과에서만 근무하고 있다.

최씨는 어느날 신문을 유심히 보다가 속기사 기사를 보고 그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한다.

“저의 업무가 의회에서 일어나는 각종 기록을 정리하는 일이다 보니 자격증을 하나쯤 갖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최씨는 2003년 속기사 장비를 구입해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했다. 워낙 고가의 장비이다 보니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처음엔 일반키보드와 배열이 완전히 달라서 애를 먹었다는 최

씨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기본자라부터 배우기 시작했다.

학원을 통해 정식으로 배워야 하는데 지역엔 학원이 없어 책을 사서 독학했다. 독학으로 공부를 하면서 틈나는대로 뉴스를 보면서 듣고 치기 등 연습을 했다.

“속기사 자격증 시험은 필기시험 없이 실기시험만으로 취득하고, 1년에 상하반기 2번밖에 없더라구요, 그것도 서울에서만요.”

최씨는 시험에 도전하기 위해 1년에 2회씩 서울로 가서 시험을 봤다. 5년간 총 10회의 시험을 본 결과 지난 2008년 마침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다.

“처음엔 너무 힘이 들어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럴

때 마다 아이들 생각에 더욱 힘을 내 열심히 공부했어요.”

26세 되던 1997년 결혼 해 1남 1녀의 자녀를 두고 있는 그녀는 “처음엔 어떨뻔했지만, 나와 의 싸움에서 이겼다고 생각하니 흐뭇했다”며 “아이들에게도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좋은 본보기가 된 것 같다”고 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또다른 자격증에 도전하고 싶다는 최씨는 “속기사 시험에 도전하고 싶은 주민이 있다면 기꺼이 도움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 박승근 기자

나는특급전사다

22사단 수색대대 임창훈 원사 아들뻘 병사들과 겨뤘 특급전사 당당히 합격



젊은 장병들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특급전사’에 과감히 도전장을 내밀어 합격의 영예를 얻은 50대 부사관이 화제다.

그 주인공은 육군 제 22보병사단 수색대대 주임원사 임창훈 원사(50, 사진).

22사단은 ‘전투형 야전부대 재창출’이라는 시대적 화두와 맞물려 ‘적과 싸워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문 싸움꾼’ 양성을 위해 특급전사 선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사단 특급전사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사격과 체력 뿐 아니라 정신전력과 편제화기 평가까지 모두 합격해야 한다. 그야말로 문무를 겸비해야만 ‘특급전사’라는 명예로운 칭호를 얻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장병들은 매일같이 훈련에 매진하고 있지만, 번번이 쓴 고배를 마시고 다음을 기약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하지만 임 원사는 사격 18발, 윗몸 일으키기 95개, 팔굽혀펴기 101개, 3km 달리기 11분 30초, 정신전력 평가 95% 등의 우수한 성적으로 당당하게 선발됐다.

지난 1983년 입대해 29년째 군 생활을 하고 있는 임 원사는 출신수범과 성실한 복무자세로 부사관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특히 DMZ 수색·매복, 헬기 레펠, 천리행군 등 수색대대의 힘든 훈련을 아들 뻘인 병사들과 빠짐없이 완수하고 있다.

임원사는 또 노인요양원 봉사활동, 지역 문화재 보존활동, 장애우 한마음 체육대회 지원 등을 통해 병사들에게 나눔과 감사의 마음을 갖도록 지도하고 있다. 이런 노력 덕분에 지난해 고성군 자원봉사 우수부대 표창을 수상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임창훈 원사는 “나 스스로가 수색대대원임을 잊지 않고 나타내지지 않기 위해 꾸준한 체력을 유지해온 결과, 특급전사라는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 기쁘다”며 “군 생활을 마치는 그 날까지 자기계발을 멈추지 않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최광호 기자

제19대 최민철 속초소방서장 취임 창의적 사고 · 합리적 업무스타일



제 19대 신임 최민철 속초소방서장 취임식이 지난 9일 오후 4시 속초소방서 3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최민철 속초소방서장(사진)은 1970년 전북 전주 출생으로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사법시험(44회)에 합격한 뒤 2005년 소방령 특채로 공직에 입문했다.

2005년 8월 인천 계양소방서 대응관리과장을 시작으로 인천소방본부 감찰안전팀장, 소방방재청 후생복지총괄, 철원소방서장 등을 역임했다.

최 서장은 창의적 사고와 합리적 업무 스타일로 조직의 화합을 도모하고 남다른 리더십을 발휘할 지휘관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가족으로는 부인 노지영씨가 있으며, 취미는 테니스와 등산. 원광연 기자